

# ‘코로나19’ 쇼크, 사스 넘었다... 유통·항공·호텔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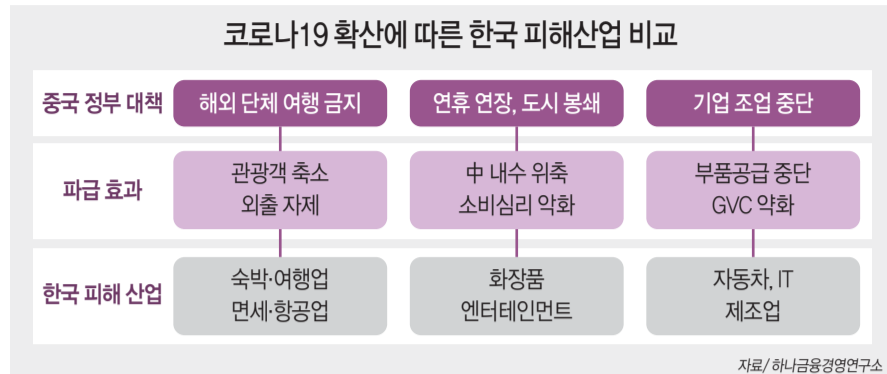
(SOS)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별 영향 보고서

중 경제위상 커지며 파급력 상승  
韓 지리적 연결성 높아 피해 불가피  
“수출 다변화 통해 위험 분산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커지며 한·중간 경제적·지리적 연결성이 커진 까닭이다.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은 관광객 축소와 외출자제, 중국 내수 위축 등으로 유통업·호텔업·항공업·화장품업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국기업의 조업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로 IT·자동차를 포함한 대



부분의 국내 제조업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경제적·지리적 연계성 ↑...산업 전반 타격

연구소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력이 사스 때의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높은 경제·지리적 연결성으로 산업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관광객 축소와 외출자제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여행·숙박·면세·항공·화장품 산업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중

단 장기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자기기·운송장비·기계·화학 등 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영준 산업분석팀장은 “한국 수출과 입국 관광객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30%를 웃돈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은 관광객 축소, 중국 내수위축,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의 경로로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비재 산업, 직접적 피해 불가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는 유통업이 지목됐다.

연구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임시 휴업 매장의 매출 손실, 해외 입출국객 감소와 중국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면세점 타격, 집합시설 기피로 인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영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김문태 수석연구원은 “점포당 매출액이 크고 해외 입출국객 변화에 민감한 면세점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근 면세점 고성장이 외국인 매출 급증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항공업 역시 전체 국제선 노선 중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노선의 운항 중단 및 감편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감소 뿐만 아니라, 중국 노선이 외의 여행 자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 홍콩에 이어 중국 노선마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감편되면서 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항공업계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호텔업 역시 외국인 숙박객의 급감과 함께 호캄스 쪽으로 대표되는 내국인 숙박객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단체 활

동에 대한 거부감으로 각종 행사 및 모임이 취소되면서 부대시설 매출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 ◆제조업 전반으로 충격 확산될 전망

제조업 부문에서는 중국생산공장이 휴무에 들어가면서 부품수급 차질로 국내 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자동차 산업을 제외할 경우 직접적인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부품 및 소재 조달과 물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중국의 수입수요도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전자기기·기계·화학 등 주요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인혜영 연구위원은 “중국발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기업들은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15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한 객실 발코니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 일본에서 14일 하루에만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259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18명은 크루즈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한 객실 발코니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 일본에서 14일 하루에만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259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18명은 크루즈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코하마=AP/뉴스시

## “감염병 경제손실, 전 세계 5700억弗 달해” (GDP 0.7%)

### 보험연구원 보고서

#### 감염병 위험에 경제적 민감도 증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16일 발간한 ‘감염병 리스크 대비 보험상품 개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술 발전과 방역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발생 빈도와 감염병 위험에 대한 경제적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GPMB에 따르면 1918년 당시 세계 인구의 2.8%인 5000만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수준의 감염이 지금 발생한다면 8000만명이 사망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

가 간 이동 증가, 도시화, 사람과 동물 간 접촉증가, 국가간 교역 증가 등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 빈도나 손실 비용은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염병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염, 치료, 격리, 사망에 따른 인적 손실과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및 글로벌 공급망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기후변화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해 70만명 이상이 감염병으로 사망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전 세계 GDP의 0.7%(5700억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사스(SARS)는 400억달러의 생산성 감소비용을, 2014~2016년 에볼라(Ebola)는 530억달러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는 450~550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MERS의 경제적 피해비용을 총 2조3010억 원으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내에 집중될 경우 관광수입이 9000억원, 수출이 최대 2조5000억원 감소, 국내소비가 0.1%포인트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감염병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손실규모가 크고,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통상 민간보험에서 담보를 꺼린다”며 “보험회사는 감염병 발생 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둔화와 기업의 수익감소, 그리고 그것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코로나로 국제유가 변동성 더 커질 것”

### 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 중·세계 경제둔화, 석유수요에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6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 우려로 지난 1월 말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두바이 유가는 지난달 20일 배럴당 64.4달러에서 지난달 말 57.6달러로 하락했고, 지난 11일 기준 53.3달러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여행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 및 세계 경기 둔화 등이 글로벌 석유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투자은행(IB)은 올해 1분기 세계 석유수요 전망치를 일평균 115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65만배럴 하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확

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2002~2003년 사스 때와는 달리 중국의 석유소비 규모가 커진 데다 코로나19의 확산속도 등을 감안하면 향후 글로벌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더 둔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국제유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정도, 주요 산유국의 추가 감산 여부, 리비아내전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중국제조업수익성이 더 악화돼 투자심리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매출 증가세가 악화한 데다 기업보유 자산의 평가 가치가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인건비·원자재 비용 상승도 이익 감소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중국 제조업은 전망도 밝지 않다. 한은은 “중국 공장가동 중단, 도시 봉쇄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업체의 경우 당분간 투자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 한경연 “코로나19 장기화면 기업 매출 10% 감소”

### 1000대기업 ‘코로나19’ 영향 조사

재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장기화되면 10% 안팎의 매출액 감소도 예상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시장조사기관 모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사태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기업 중 61.8%가 악영향을 전망했다. 매출액과 수출액 감소

예상 수준은 각각 3.3%와 5.1%로, 업종별로는 무선통신기기(8.4%)와 자동차(7.3%), 석유제품(6.0%)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피해 수준은 매출액이 8%, 수출액이 9.1%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13.9%)와 자동차부품(-12.8%)이 가장 타격이 컸고, 석유제품(-12.4%)과 일반기계(-11.0%), 섬유류(-10.8%)도 10% 이상 피해가 예상됐다. 중국에 대한 수출액도 평균 12.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중국 현지 출장을 자제한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지만, ‘별 다른 대응방법 없음’도 29.5%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현지 경영활동 축소도 6.7%로 적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지원 우선 순위로는 ‘국내외 전염상황 등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가 57%로 절반을 넘었고,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21.2%)’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 간 협력(9.5%)’ 등이 거론됐다.

/김재용 기자 juk@